

“계엄군 무자비한 만행에 분노 일주일간 시민군 활동”

5·18 사진 속 그 사람 - 부상당한 시민군 후송한 정홍섭씨

“당시 계엄군은 젊은 사람들만 보이면 막무가내로 두드러냈어요. 그때 금남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치거나 숨진 시민들을 실어날랐는데, 그때 누군가 찍은 것 같아요.”

정홍섭(69·사진)씨는 18일 미국 평화봉사단원 소속 팀 원버그 등과 5·18 당시 부상당한 시민들을 들 것으로 실어나르는 사진속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들 것으로 부상당한 시민군을 후송하는 사진은 5·18 당시 계엄군의 잔혹함과 무자비함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한 이웃들에 대한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상징적 사진이기도 하다. 사진 속 5명 중 한명인 정씨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더듬으며 떠올렸다.

사진에는 5월 22~23일께 동구 금남로 제일은행 앞에서 들 것으로 부상당한 시민을 실어내고 있는 시민들이 찍혀 있다.

정씨는 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때리는 계엄군의 만행을 두고보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시민들과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나섰다 당시 상황을 전했다.

1980년 동구 반도상가 일대에서 여인숙을 운영했던 정씨는 5월 18일, 아내가 눈

홍안과 찾았다 계엄군에 구타

차량 끌고 곳곳 부상자 후송

아내 눈물의 요청에 집 돌아와

“진상규명·왜곡 처벌 이뤄져야”



이 아파드는 말에 함께 ‘홍안과’를 찾았다가 계엄군과 마주했다가 이유 없이 곤봉으로 두들겨 맞았다.

29세 혈기왕성하던 정씨는 아픈 몸을 집으로 이끌고 들어왔지만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내 곳곳에서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말도 끊이지 않았다.

그는 신군부와 계엄군 퇴진 등을 외치는 시민대열에 합류할 수 밖에 없었다.

정씨는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시민군으로 활동했다. 차량을 끌고 시내 곳곳을 돌며 부상자를 후송하거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계엄군 진압 작전이 있기 전날인 26일 밤 9시, 두살바기 아들을 업고 찾아온 아내를 혼자 돌려보내지 못해 집으로 돌아왔다.

정씨는 “바지를 잡고 늘어지며 우는 아내를 뿌리칠 수 없었다”면서 “당시 상무관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뒤로 했던 죄스러움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가 도청을 떠난 뒤 7시간 뒤인 27일 새벽 4시에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시작됐다.

정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그날 함께 하지 죄책감은 평생 가슴 속에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28일 무장한 채 들이닥친 계엄군에게 붙잡혀 상무대로 끌려가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했다. 정씨는 “그때의 트라우마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후 내란음모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



1980년 5월 당시 정홍섭(원안)씨가 시민들과 함께 부상당한 시민군을 들 것을 이용해 옮기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을 받은 정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폭도’라는 낙인 때문에 정상적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정씨는 “당장 먹고 살아야 해 택시기사 일을 시작했는데, 출근 3일째 되던날 택시 회사 사장이 일을 그만두라고 하더라”라며

“알고보니 내가 택시를 타고 출근을 하면 경찰 정보과 직원들이 회사 사무실에 진을 치고 앉아 영업을 방해해왔다. 사장님에게 미안해 내 발로 회사를 나왔다”고 말했다.

정씨는 40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기념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정씨는 “이미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늦었지만 대통령 약속대로 올해 5·18 진상 규명과 왜곡과 처벌을 끊는 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먹밥 나누고 추모와 다짐 글 올리고

광주·전남 교육계

5·18 40주년 다양한 행사

광주·전남 교육계도 18일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공동체 정신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0년 전 광주시민들의 성숙한 공동체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주먹밥 나눔 실천 장면을 재현하고자 이날 점심에 급식실에서 직원들에게 주먹밥을 배식했다.

또 광주장의융합교육원 직원 50여명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다함께 쉼터’에 동참했다. 5·18 주간(18~27일)을 맞아 시 교육청 각 실과와 산하 기관 등에서 하는 쉼터는 직원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5·18의 의미를 현수막 등에 적거나 촬영해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행사다.

시 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5·18 사이버 기념관(human.gen.go.kr/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도 교육청 간부들이 18일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지역 농산물로 만든 주먹밥을 출근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518)’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사이버 기념관에서는 추모와 다짐 글 올리기, 영상 등 디지털 교육 자료와 각종 수업 자료 지원, 참여 행사 안내,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교육 활동 사례 나누기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교육청도 이날 주먹밥 나눔 실천을 재현했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등 교육청 간부들은 이날 오전 도 교육청 앞에서 감자와 방울토마토 등 지역 농산물로 만든 주먹밥을 출근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에게 나눠주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주간으로 정하고 나눔과 참여, 연대의 5·18정신을 기리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 40주년 기념식 방송사 사장 2명 초청 이유는 행사위 “미흡한 5·18 실상 보도 일깨우기 위한 것”

40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 언론을 대표해 KBS와 MBC사장이 초청을 받았다.

기념식이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시 오일 3단계장(5·18 유족회장, 부상자회장, 구속부상자회장)과 양승동 KBS 사장, 박성제 MBC사장이 동행했다.

18일 ‘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두 방송사의 사장은 정부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립 5·18 묘지에서 대통령과 동행한 언론사 대표로는 유일하다.

두 언론사 대표는 국립 5·18민주묘지 제1묘역에서 헌화하지만 진행하고, 제2묘역은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위 관계자는 “두 언론사의 대표만을 초청한 것은 40년 전 언론이 5·18의 참혹한 실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점을 일깨우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1980년 5월 20일 광주시민들은 광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정부의 발표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방송국에 찾아가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 MBC방송국 건물에 전소하고 KBS는 TV주조정설이 불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교육청, 등교 개학 맞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시행

광주교육청이 20일 고3부터 시작되는 등교 개학에 맞춰 그동안 준비해 온 2020학년도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들을 본격 시행한다.

학생들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해 학내 대안교실에서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57개 초·중·고가 참여할 예정이다.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서 학생 맞춤형 치유·상담, 대안교육도 한다.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올해 신규 지정된 ‘원당산 청소년 문화의 집’(고1 대상)과 ‘각화 청소년 문화의 집’(초등 3~6학년 대상) 등 2개 기관을 포함해 20개가 있으며 위기학생들에게 학업 지속 기회를 부여한다.

‘학업중단속려제’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속려제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7주 이내 속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치유, 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도 지원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다.

올해 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업중단속려제를 운영해야 하고, 초·중학교에서는 학교장 판단 아래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업중단속려제를 운영할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더 더하는 학교 더 나누는 학생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운영
비단고을 역사·문화 자랑

“비단고을 놀이문화 활성화 학생 자치 역량 강화”

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
Jeollanamdo Naju Office of Education

전남 나주시 원사천길 15 ☎ 061-330-0154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
어르신 돌봄은행이
함께합니다!

“이제는 자원봉사도 저축이 된다”

어르신 돌봄은행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돌봄활동을 제공하면 이를 돌봄포인트로 적립·관리하고, 만 65세 이후에 본인·가족·제3자가 돌봄활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돌봄봉사자 모집
● 돌봄봉사자 자격 : 만13세이상, 2인 1조 활동 권고, 4시간 교육 필수(교육시간도 포인트 혜택)
● 돌봄봉사자 혜택
-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적립 및 사용)
- 돌봄활동 시간 VMS 연계 적립
- 돌봄포인트 적립 시 의무기부 20%
-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과 제3자에게 기부 가능
● 돌봄활동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안전관리 등
● 돌봄봉사자 기초관리교육 : 수시 모집

돌봄대상자는?
● 어르신 돌봄은행에 회원등록한 만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전문가가 돌봄활동 제공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자이거나, 만 40세 이후 본인이 적립한 돌봄포인트와 기부받은 포인트의 합계가 100포인트 이상인 어르신
● 돌봄서비스 범위 : 인지활동·정서지원, 가사·일상생활지원, 주택 안전관리 등

CCC 동구노인종합복지관 www.noin.or.kr
☎ 062-232-4953

1688-3579 (전국 50개 시군구소재)

보건복지부 SSN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자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노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